

LOCAL

2025년 9월 3일 수요일

곡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추진

곡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해 월 최대 25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곡성군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가구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지원 조건을 확인한 후, 10월 17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11)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보성, 자치포럼 개최
8일 보성문화예술회관

보성군은 오는 8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제375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독 쏘는 사이다 강연’으로 잘 알려진 상당삼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초청돼 군민과 만난다.

‘나답게 살고, 내일을 바꾸는 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상담심리 전문가인 이교수는 JTBC ‘이혼속려캠프’, EBS ‘부모클래스’ 등 다양한 방송에서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으로 대중과 소통해 왔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포럼은 군민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나다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며 “많은 군민이 함께해 삶의 지혜를 나누고 더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우승희 군수가 최근 국회를 찾아 서삼석 의원과 면담을 갖고, RE100 특별법 내 산단 지정 검토와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성공 개최 준비 만전

군, 주차대책·안전관리·의료지원 등 운영 점검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5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시달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실·단·과·소 서무팀장, 읍·면 부읍장, 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제 추진계획과 부설별 행정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축제장 안전관리, 교통·주차대책, 환경정비, 방역·의료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점검하며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 나섰다.

25회를 맞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5년 연속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대표 가을꽃 축제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레드 이발소·도래미 프랜즈 싱어롱쇼’, 개막식 축하공연 ‘신호범의 상사화 in love’, 사회자 김제동의 재치 있는 입담이 돋보일‘김제동 토크쇼’, 축제 대표 캐릭터 ‘상사호’를 만날 수 있는 홍보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야간 셔틀버스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10일간 운영되는 셔틀버스는 영광터미널에서 오전 4시30분에 출발해 축제를 즐

우승희 영암군수 ‘RE100 산단 유치’ 등 정부에 지원 요청
대불산단 중심 에너지·산업 수요 등 ‘준비된 지역’ 강조

영암군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우승희 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김원이·최기상 의원과 면담을 갖고, RE100 특별법 내 산단 지정 검토와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단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삼호읍 대불국가산단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산지소 그린시티 100’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영암이 RE100 산단 유치에 가장 적합한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앙의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우 군수는 “RE100 산단은 단순히 조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 산업 수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에 조성돼야 한다”며 “영암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고루 갖춘 준비된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대불산단의 RE100 전

한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미 조선·해양 기자재 중심의 제조 생태계가 탄탄히 구축돼 있고, HD현대삼호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도 즉시 연계가 가능해 신규 산단과 연계한 단계적 전환 모델로서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정만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실행 기반을 갖추고 준비를 마친 지자체가 영암이다”며 “산단 유치를 통해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산업 재편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후속 협의와 RE100 특별법 의견 제출, 국비 확보 등 산단 유치와 정책 반영을 위한 다방면의 전략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구북규 화순군수, 청렴이야기로 신뢰 다져
‘사소한 청렴이 조직을 바꾼다’ 주제

구북규 화순군수(사진)가 두 번째 청렴 이야기 에피소드를 송출하며 조직 신뢰 다지기에 나섰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청렴 이야기는 ‘사소한 청렴이 조직을 바꾼다’란 주제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사소한 청렴에 대해 구북규 군수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큰 부패는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인용, 작은 편이나 사소한 부정이 쌓이면 결국 조직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점심 식사, 커피 한잔 등 사소한 접대가 반복되면 청렴에 둔감해지고, 기운이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하며 ‘스스로 불편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청렴’



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과 친절을 지키는 직원들을 ‘조용한 영웅’으로 소개하며 ‘청렴은 당연한 일을 끝까지 당연하게 지키는 힘’이라는 청렴 메시지를 전했다.

맺음말로는 혹시라도 ‘이건 사소한 나기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준을 점검해달라며, 정직한 마음으로 8월을 마무리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9월 가을날의 새로운 만남을 약속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여수 흥국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특화 이벤트·문화콘텐츠로 복합 문화공간 기대

여주시 흥국상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2일 시에 따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해 특색 있는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흥국상가는 앞으로 2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해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요 사업은 ‘응답하라 흥국상가(1995)’와 정기 플리마켓 등 특화 이벤트, 흥국상가 BI·캐릭터 개발, 청소년문화제, 문화체험교실 등 문화콘텐츠,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마케팅 등 기반 시설 정비 등이다.

흥국상가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단은 사업단과 상인회를 주축으로 흥국상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여수=송민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인공여초

군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2026년도 불라류 산란·서식장 조성(50억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공모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신안=성명준 기자 tjdaudwns@

신안, ‘다이아몬드 해역’ 물고기 아파트 조성

종자 방류·인공여초 투하·낚시 관광 활성화 기대

신안군이 다이아몬드 해역을 해양 관광과 어업 소득 증대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인공여초 68개를 추가로 투하했다. 10월 중 107개의 인공여초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투하된 인공여초는 해역 특성과 수산생물의 은신처 제공, 해조류 부착 표

면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적의 모델이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총 90억 원을 투입해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027개의 인공여초를 투하하고 130만마리의 수산종자를 방류해 수산생물에 최적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내일의 꿈을
꿈꿔갑니다

종합인쇄전문기업
(주)다원

최저가
인쇄쇼핑몰

1688-9959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인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공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솔루션

검색